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1.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2017년 8월 ~ 9월 2개월 간 비관세장벽 관련 기사를 수집, 분석한 결과 식품, 원산지, 표시, 가공식품, 개정안 등 키워드가 도출되었음

주요 키워드 :

식품, 원산지, 표시, 가공식품, 개정안 등



02. 이슈 트렌드 분석

도출된 주요 키워드로 관련 이슈를 재 검색. 이슈 발생 일자에 따라 시계열로 분석하여 핵심 이슈를 선정하였음

2016.10.24 일본 소비자청, 가공 식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 제도에 관한 제 10회 검토회 개최	2016. 11.29 일본 소비자청, 가공 식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 제도에 관한 검토회 중간 정리 공표	2016. 12. 2 일본 소비자청, 가공 식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 제도에 관한 검토회 중간 정리 설명회 개최
---	--	--

핵심이슈
도출

일본 소비자청, 새로운 원료 원산지 표시 제도 개정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3. 비관세장벽 이슈 분석

일본 소비자청, 새로운 원료 원산지 표시 제도 개정

2017년 9월 1일, 일본 소비자청은 식품 표시 기준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각부령을 공포하여, 새로운 원료 원산지 표시 제도를 공개하였다. 지금까지는 일부 가공식품에만 의무적으로 원료 원산지 표시를 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모든 가공식품으로 의무 표시 대상이 확대되었다. 일본 소비자청 발표 내용에 따르면 이번 개정 목표는 소비자가 원료의 원산지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얻어 자발적이고 합리적인 식품 선택을 하기 위함이며 새로운 제도의 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 원료(사용된 원료 중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의 원산지를 원료명칭에 대응시키는 경우

- (1) 대상 원료가 신선식품인 경우 국산품은 국산 또는 잘 알려진 지명, 수입품은 원산지 국가를 기입한다.
- (2) 대상 원료가 가공식품인 경우 국산품은 '국내 생산 또는 ○○ 제조', 수입품은 '원산지명 제조'로 표기한다.
- (3) (1),(2)에 의해 표시하는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인 경우는 대상 원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한다. 또한 3개국 이상인 경우 2개국 이외의 국가를 기타로 표시할 수 있다.

2. 이외 국가별 중량 순서 표시가 어려운 경우

- (1) 또는 표시 - 원산지가 여러 나라일 경우,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또는' 연결로 표시
예) 원재료 명 돼지 고기 (캐나다 또는 미국)
- (2) 대형 일괄 표시 - 3개국 이상의 외국 원산지는 '수입'으로 묶어서 표시, 가공식품일 경우 '외국 제조'로 표시 예) 원재료 명 대두 (국산, 수입)
- (3) 대형 일괄 표시 + 또는 표시 - 과거의 사용 실적 등을 바탕으로 3개국 이상의 외국 원산지를 '수입'으로 묶어 표시하고, 수입과 국산을 둘 다 사용할 경우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또는' 연결로 표시 예) 원재료 명 밀 (수입 또는 국산)

향후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일본 소비자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모든 가공식품에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5년 후 2022년 4월부터는 전면적인 실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최근 칼로리 등의 가공식품의 영양성분 표시사항들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유전자 재조합 식품 등도 표기 대상으로 추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GMO 제품을 포함한 모든 가공식품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관련 기업들은 원산지 표기 방법을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원료 원산지 표시 제도 개정에 대한 세부 내용의 링크는 다음과 같다.

http://www.caa.go.jp/policies/policy/food_labeling/quality/country_of_origin/index.html

1. 新たな加工食品の原料原産地表示制度に関する情報, 消費者庁, 2017.09.01
2. 「加工食品の原料原産地表示制度に関する検討会中間取りまとめ」に係る説明会の開催について, 消費者庁, 2016.12.02